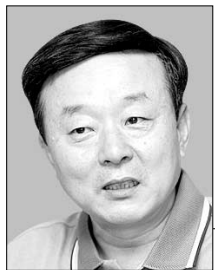


"당신보다 힘들었지만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11개월 동안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를 향해 평범한 사람들이 던지는 분노의 항변이다. 어려운 환경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또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범죄를 안 저지르지도 않는다.

엽기란 말을 함부로 써댄 업보인가. 잔혹의 사육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우, 지존파, 막가파 다음에 그가 놓인다. 미술과 문학에 재능을 가졌던 섬세한 소년기 화대의 살인 기계가 되었다. 그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정신적 삶을 위해 노력한다. 세상은 부조리한 아수라장이기도 하지만 인내와 노력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나오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내심에 처서 망가진 것이다.

혼돈의 시대이다. 가치와 질서의 울골은 가득이 없다. 현실과 게임을 동일시한다. 충동과 자극은 기하급수적으로 단위를 높여간다. '암들의 침묵'에서 시작된 불특정 대상을 살해하는 영화는 숨가쁘게 자극의 강도를 높여간다. 맹목적 증오, 맹목적 살인이라 말이 낯설지 않다.

"한 인간이 품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증오심이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적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살인기계'를 보며...

인 공격 행위로 표출된 것"이라는 학자의 정의가 감동적이기보다는 허탈하다. 무엇을 잃었기에 극단의 증오가 범람하는가.

홀려간 옛 노래처럼 맥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행복의 최소 단위를 다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증오와 파괴의 수렁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 모든 문제야, 범죄자의 뒤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다. 물론 그것이 일탈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처참한 살인의 광란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상기한다.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이라는

무책임한 농담은 철회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면책 특권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아내도,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남편도 어느 한 부분은 미덕이 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지 않은가.

두 달 전 미국인 무랑스님과 며칠 간 동행한 적이 있다. 이혼과 가족 해체가 수저 바꾸듯이 쉽고 자유로운 곳이 미국이 아니냐고 물었다. 스님의 대답은 나를 심히 부끄럽게 했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미국의 모습이다. 이혼율 50%

정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심지어 권장할 만한 일인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결혼 가정의 미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는가. 마약과 범죄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것은 부모의 불화와 가정의 붕괴에 기인한 것이다. 스님의 출가도 가정사와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 시절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용감 무쌍하게 1년만에 재혼. 그후 삼촌을 했다. 스님은 세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출가수행으로 승화시켰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한다. 익명과 단절이라는 시대의 어두운 초상을 탄식한다고 범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회의 인프라가 가정이다. 가정이라고 해서 저절로 건강성과 행복이 보장되는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 가위질을 하며 가꾸어 나가야하는 나무이다. 건강한 나무가 많아지면 건강한 숲이 된다. 수행 공간이 천하절경의 명당에만 있는가. 번잡한 저자 거리 역시 수행터이다. 열굴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비명에 간 녀들에게 명복을 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정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20세 이상 국민의 15%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2002년 기준 무려 3조6천억원 이상에 이른다... (중략) ...

자원봉사는 '국력'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에 대해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는 자원봉사부문에 있어 항상 타종교에 뒤쳐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원봉사란 글자 그대로 스스로 나서서 남을 돕는 행위다. 불교가 아무리 보살행, 보시행을 역설하고 실천불교를 주장한다 해도 자원봉사가 미흡하면 불교는 구두선, 공염불의 종교로 전락하고 남이 갈수록 포교의 영역이 좁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런 기회가 불교가 종교로서 사회적 호감과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불교계는 다할 것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단위사찰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뛰어넘어 종단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규대화, 지속화할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원봉사전문가와 지도자 육성, 비영리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도수(법명)도량 학주



이렇게 들었다

타종교 배척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바세경>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간 세상의 각박함에 몸서리친다. 나를 아끼듯 다른 생명을 아끼는 도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골고루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은 언제나 1순위이지만 다른 생명을 대하는 마음은 언제나 '나' 다음에 놓여지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을 자신과 하나로 보고 부모처럼 공경하는 세상은 올 수 없는 것일까?

얼마전, 대학 입시를 앞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가 특정한 예식에 강제적으로 참가시키는데 이의를 제기했다가 제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 불교계는 물론이고 기독교계에서도 학교 측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비난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당학교의 교목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 학교 측의 제적 조치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고구정형 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차라리 배타적인 신앙이 옳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지나친 배타성이 개신교의 본래 교의와 인식을 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개신교의 배타성이 지속되는 한 지성사회의 눈총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의 결론은 '기독교 의식 개혁 운동'의 필요성으로 달고 있다.

종교는 종교 바깥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 불교는 '자타 불이'의 가르침으로 철저한 상생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어느 종교든 그 가르침의 본의를 얼마나 바르게 실천하여 인간 세상의 '오늘'을 가꾸어 가느냐에 있다.

■ 임연태(법명부왕)



사형제 폐지

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쟁에 불이 다시 붙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7월 15일 사형제 폐지와 중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종교계와 정부간 사형제도 존폐 찬반의견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사형제도, 사법적 살인인가. 국가질서 유지에 필요한 필요악인가?" 찬반의견을 들어봤다.

사형제는 곧 '사법 살인 행위'

진관(조계종 사형제도폐지위원장)



사형이란 죄악이다. 어떻게 인간의 귀중한 목숨을 법이란 이름으로 죽일 수 있다. 사형은 사법의 살인이다. 관제의 살인이다. 법이란 인간이 만든 법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존엄이다.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도 소중한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법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이 됐다.

오늘에 있어서 종교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을 합법화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대 서양 사회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종교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불살생의 이념을 근본으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명도 살생해서는 아니된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존중의 나라로 한 계단 오르게 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을 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만일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사회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는 법의 존엄성을 성찰할 수 있다. 인간이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존중하려는 법의 정신의 실현이 중요하다.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가질서 유지 위해 존속돼야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국가경영 차원과 공공의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범죄 억제 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악범,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사형제도가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국민의 법감정도 사형제도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업자득의 이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형제도 존치의 입장은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사형제도 존치는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도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된다고 판결했다.

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형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 흉악범죄 억제 기능이 크고 범인을 영구 격리해야 하므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최근 종교계가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종교를 떠난 원칙과 제도로 국가질서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큰 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연대' 민영

심민섭



오대산 월정사 불교대학 제 1기생 모집

선남자야, 누가 가장 높고 착한 이인가? 먼저 부처님과 법을 믿어야 하며,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여야 하며, 자기안의 해탈을 구하여 말고 대중에 회향하여 일체중생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자이다. <대반열반경>

- 1. 개강일 : 2004. 9. 4. 오후 2시(음력 7. 20. 토요일)
2. 교육과정 : 1년과정(2004. 9. 4 ~ 2005. 8. 31)
3. 교육시간 : 주 1회(매주 토요일 14:00 ~ 18:00 총 4시간)
4. 교 과 목

Table with 5 columns: 번호, 분류, 교과목명, 학기, 총강의시간, 주당수업시간. Lists 11 subjects including Buddhist scriptures, sutras, and meditation.

*특강: 청소년 포교론 불교사회복지 등

- 5. 수강료 : 연 240,000원(월 2만원, 입학금 포함, 교재대 별도)
6. 모집인원 : 70명(선착순)
7.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매, 사진(3x4cm) 3매
8. 원서접수 : 2004. 8. 1 ~ 8. 31
9.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중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10. 기 단 :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org)를 참조하십시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주 지 퇴우 정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행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제 1기생 모집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는 불법 만나기 더욱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의 숲길로 아름다운 민족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한 달 동안의 단기 출가자를 모집합니다. 사발염의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초심자(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불법에 대한 신심고취는 물론, 밖으로만 치달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삶을 돌이켜 점검해보는 일생에 있어 단 한번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일반인에게 사발염의하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출가수행자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도량인 단기출가학교를 열고자 하니 수행 동참하시어 겹겹이 쌓여 있는 무명 업장을 벗겨내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Table with 7 columns: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Lists activities for the 1-month retreat school, including sutra recitation, medit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 5. 수행경비 : 10만원
6. 신청기간 : 8월 1일 ~ 9월 4일
7. 문 의 처 : 오대산 월정사 중무소 (☎ 033)332-6664 ~ 5 / fax 033)332-6915, 담당 : 박재현)
8. 기 단 : 수행프로그램 및 자세한 내용은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org)를 참조하십시오.

불기 2548(2004)년 7월 16일

주 지 퇴우 정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학 교 장